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영광

누가복음 5:17-26

요절 24a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아침 메신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영광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메시지에서 저는 예수님의 영광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과 나누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삶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앉았더라

그들은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독특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전 세계에서 이 수양회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여기에 계십니다.

어떤분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여기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18-19절을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무리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군중들도 심지어 지붕조차도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어찌하든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상한 심정으로 불쌍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분들은 많은 장벽이나 어려움들로 인해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분들의 유일하시고 참된 희망이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친구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군중들에게는 이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무례하고 미친 자들로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치유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친구들이 듣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구가 걸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시급한 문제인 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17은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는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이 불평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부담을 줍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선을 항상 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남을 부담스럽게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실질적이거나 심각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 양과 황소의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성한 권위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자 마치 빨간 신호등이 번쩍이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사실, 그들의 주장은 정당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쉬겠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네 죄 사함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쉽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모세시대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정한 용서와 치유의 능력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곧 그들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니 ...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후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그분의 신성한 권위를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내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모릅니다.

정말로 나를 위한 죄 사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당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 당신이 얼마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죄 사함을 위해 당신의 모든 죄와 수치를 십자가에서 그의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당신의 최악의 죄, 당신의 모든 죄는 당신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믿을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삶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John Fatoyinbo입니다. 한때 저는 죄로 마비되었고 제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할머니는 저를 우상을 숭배하고 철의 신과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신당으로 데려가곤 하셨습니다.

또한 정욕과 분노와 부도덕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이 모든 죄들이 나를 눈멀게 하여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한 친구가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빛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21 절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분노의 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죄 많은 생활 방식의 결과를 아는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저의 주님과 구주가 되셨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화를 내며 많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결혼의 꿈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기도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네 자녀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목자이자 성경 선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라고스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나 그 누구도 당신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엿보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